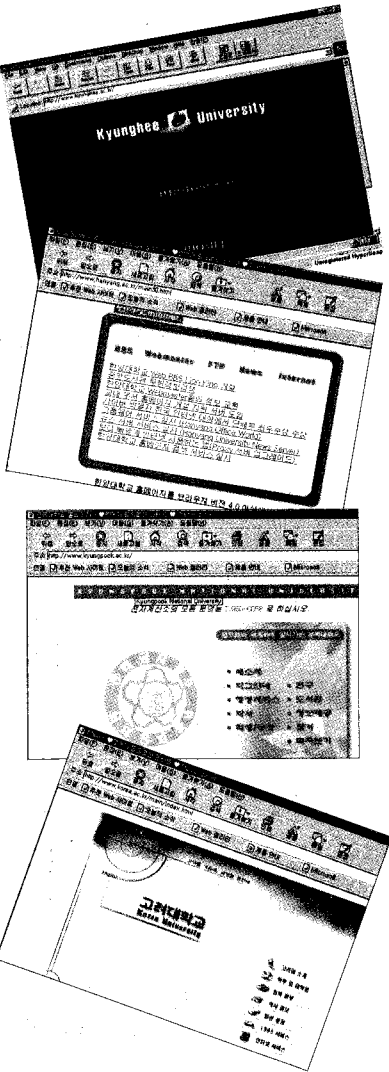


□ 기획취재 - 우리학교 홈페이지 위상 점검

사이버 경희, 경쟁력을 키우자

20개 대학 홈페이지 평가 결과 우리학교 성적 저조

디자인 이용자 편의 접속시간지연등 전영역 걸쳐



인터넷에서 <http://www.kyunghee.ac.kr> 로 들어가면 우리학교를 만날 수가 있다. 1995년 우리학교는 공식 홈페이지를 구축, 명실상부한 정보화 대학임을 자부했다. 그러나 구축된 지 3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타 대학과 비교해 볼 때 우리학교 홈페이지가 색 색 우수하지만은 않다. 이에 타 학교와 우리학교의 홈페이지를 비교,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편집자>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본보 조사팀이 전국 20개 대학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 우리학교 홈페이지가 총점 6백점 만점 중 3백35점을 받아 18위에 머물렀다.

평가항목은 총 6개로 홈페이지 자료의 신속성 홈페이지 자료의 충실성 △교내 홈페이지와의 연결성 △홈페이지 디자인 △사용자 편의성 △영문서비스 유무 등이다.

이 가운데 우리학교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전체 홈페이지 디자인 부문으로 A-E로 나누어 성적을 낸

평가에서 심사위원 5명 모두에게 'C'를 받았다. 인터넷 관련학과 석사과정생 5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의 팀장은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타학교의 경우 초기화면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메뉴들이 조직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반면, 우리학교 홈페이지는 불필요한 초기화면 때문에 접속시간이 지연된다 보니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용자들이 쉽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대적 메뉴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학교 홈페이지의 경우 다른 학교에 비해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실질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의 대표적인 예로는 홈페이지 상에서 수강신청 및 확인 기능, 성적열람 기능, 각종 증명서 발급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수강신청이나 성적열람의 경우 매학기 학생들이 이용해야 하는 과정이라 홈페이지 상에서 이러한 학사업무가 가능해 진다면 학생 편의는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상국 정보처리센터 소장은 "내용적인 면에서 미흡한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구성원들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내년까지 신문에 상관없이 학내 구성원 전무에게 홈페이지 ID를 부여하고 완벽한 통합 시스템인 인터넷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평가에서 항목당 20점을 책정, 각 대학별 총점은 1백 20점이며 전체 총점은 6백점 만점이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얻은 대학은 H대로 총 5백35점을 받았다. 그 다음으로는 5백점을 받은 KM대와 4백50점을 받은 KP대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표 참조>

1위를 차지한 H대 홈페이지는 학생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디자인, 자료의 충실성 등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3위를 차지한 KP대의 경우 수강신청 및 성적열람이 홈페이지 상에서 가능하고 통합시스템 구현이 장점으로 지적되었다.

KS대 홈페이지의 경우 VOD(Video

On Demand) 서비스, 교직원 mailing 서비스 기능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요즘을 흔히 대학경쟁시대라 일컫는다. 대학의 수가 늘고 상대적으로 학생의 수가 점차 감소하게 되자 각 대학들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시작한 대학간 경쟁은 이제 그 영역에 있어 한계를 두지 않는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이색로운 홍보의 장으로 홈페이지 활용도가 높아지는 시대에 정보 수단의 구비가 미흡하다면 그 결과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사실 현재까지의 학내 인터넷 사용률이 그리 활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을 단지 구성원들의 문제로 돌릴 것이 아니라 학교가 우선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학사, 연구 부문등의 학내 행정과 관련된 홈페이지를 이용해 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이 교내 정보소통을 원활히 하고 학사효율성을 높이는 21세기형 정보화 대학으로 가기 위한 수사가 아닐까 싶다. <강남이 기자>

◆평가 대상대학◆
경북대, 경성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방성대학교,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충남대,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 홍익대



“봄이 왔어요”
봄기운이 학내에도 흥건히 젖어들었다. 지난 주 서울캠퍼스의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자 학내 곳곳에 앉아 봄을 느끼는 학생들이 부쩍 늘었다. 본관 앞 계단을 비롯해서 노천극장, 사범대 길까지.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한 번쯤 캠퍼스의 봄을 만끽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지면안내	
3	시사
5	경제개편의 방향성 점검
5	사회
6	통일시리즈2-탈북자를 통해 본 통일한국의 과제
6	지역·의료원
7	백혈병 어린이 후원
7	학술
8	생물산업 시리즈(상)-생물산업이란 무엇인가
8	문화
8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 주의 학사					
6일(월)	7일(화)	8일(수)	9일(목)	10일(금)	11일(토)
	서울총학출범식	학군대홍보설명회	모의제대학원특강		

송병기 교수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송병기 한의대학장은 오는 7일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받는다. 보건의 날을 기념, 보건의료부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하는 이날 행사에서 송교수는 한의학을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훈장을 표창받게 되었다.
1958년 우리학교 한의대를 졸업하고 1976년과 1981년에 우리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마친 송교수는 현재 한의과 대학장과 전국한의과대학 교육협의회회장을 지내고 있다.
송교수는 "한의학을 과학화함으로써 21세기에 적응하고 세계 인류보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영혜 교수 미주리 콩쿨 심사위원 위촉



전 교수는 이 대회에 심사위원 5명 가운데 1명으로 선정되었다.

사 고

대학주보 47기 수습기자 추가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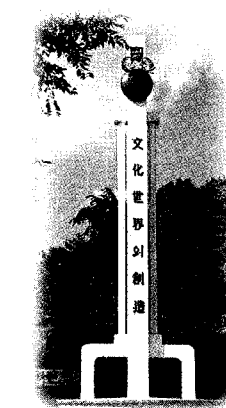
원서마감 서울 7월 / 수원 8월

○선발일정:서울 4월 7일 수원 4월8일 양캠퍼스 편집실 오후6시

○원서 교부 및 접수처:대학주보사 편집실

○연락처:서울 961-0094~5

수원 0331)201-20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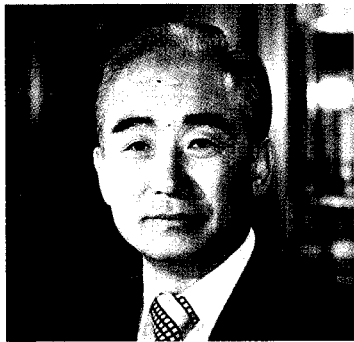
교시랍

준마를 위하여

말이 기수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기수는 채찍을 가한다. 하지만 아무리 채찍으로 쳐도 듣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당근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당근' 작전은 한갓 알은 속임수에 비유되기도 한다. 그러나 상아탑인 대학에 까지 이런 당근 작전이 유행하는 듯 해 눈살이 찌푸려진다. 수원캠퍼스 30대 총학생회의 출범을 알리는 행사가 지난 30일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예전 총학과 달리 실내에서의 조용한 출범식을 준비하게 된 것은 야외에서 할 경우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였다. IMF시대에

조영식 학원장 간디 평화상 수상

세계평화의 날 제정, 인류사회재건운동 등 공로 높이 평가



조영식 학원장이 국내 최초로 올해의 '간디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세계 평화의 날 제정, 남북이산 가족 재회운동, 인류사회재건운동, 평화복지대학원 설립 등 조학원장의 공로를 인정, 수여하게 될 이 상은 지난 89년 노르웨이 오슬로에 설립된 간디평화재단이 수여하는 상이다.

시상식은 오는 10일 오후 4시 30분 본관 대회의실에서 치뤄질 예정이며 수여는 간디평화재단 동재단 부이사장이며 평화학자인 아넌두 구하 박사가 한다. 상장 (Title Diploma) 수여시 부상으로 간디 청동상을 전달 받으며 상금은 간디재단에 헌납하기로 했다.

<해설>윌헬름 노르웨이 국회의원이 의장을 맡고 있는 간디평화재단은

대학발전위 학부제 관련 논의

수원, 국제전문인력 특성화 중심으로

수원캠퍼스 대학발전위원회가 학부제와 관련 오늘 오전 10시 30분 중앙도서관 3층 목련실에서 회의를 가졌다.

총학생회의 요구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학부제를 근간으로 한 학사구조조정과 관련된 논의가 있게 되며 박규홍 부총장, 홍전일 총학생회장 등 학생, 직원, 교수 각각 2명씩 참석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학부제 개편에 대해 조원경 교수처장은 "교육부에서도 밝혔듯이 수요자 중심의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앞으로 학생들과의 논의를 통해 좀더 발전적인 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경우 "이번 회의를 통해 학생 다수의 이해와 요구들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측과 단대 교수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조정 건립회에서는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한 국제화 부문과 외국어 부문으로의 특성화, 이공학 계열에 대한 이론과 응용 부문으로의 분리등이 논의 되어지고 있다.

인터넷 알뜰책독시장

주최: <http://khic.kyunghee.ac.kr/market>

종교관련책, 책물려주기 창구 개설

내실있는 출범식으로 학우들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취지이다. 야외행사때 드는 불필요한 돈을 줄여 '신경회 5대 실천운동'을 준비한다는 설명이 건설적이다. 그러나 기획 의도에 부합하는 성과를 얻었는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예년에 비해 홍보효과가 부족했던 실내 출범식에 대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출범식에 참석한 학우들이 과연 순수하게 학생회 출범에 관한 관심 때문에 집결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념품을 받기위해 모였는지도 알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총학생회 행사의 대·내외적 홍보문제가 다시 한번 재검토 돼야 할 것이다.

학생회가 이번 출범식에서 이처럼 '당근' 작전을 펼 수



▲아·태 국제대학원의 조감도

8일 아·태 국제대학원 기공식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전문도서관 멀티미디어실 들어서

아·태 국제대학원 기공식이 오는 8일 열린다.

기공식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자대열 아·태 국제대학원 공사 현장에서 조선헌 교육부장관, 정동성 총동문회장, LG건설 사장, 조영식 학원장, 조정원 총장 및 전직원과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치뤄진다. 연면적 4천8백21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4층 규모로 들어서게 될

아·태 국제대학원에는 전문도서관, 컴퓨터실, 멀티미디어실, 교수연구실 등이 들어서게 된다.

한편 아·태 국제대학원 학칙이 교무위원회를 지난 3월 31일 통과하여 현재 교육부의 심의를 받고 있다. 42학점의 졸업학점 취득, 재학연령 4년으로 일반 대학원과 달리 실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계획이다.

밖에 없었던 현실은 이해하지만 좀더 내실있는 사업운영의 묘를 보여주길 바란다. 또한 총학생회가 출범을 알리는 '집들이'를 한다면 일반 학생들은 컵을 받으러 달려갈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자책으로 달려가야 마땅할 것이다. 기수의 명령을 듣지 않는 말에게 무조건 채찍질만 가할 수는 없다. 또 말을 듣지 않는다고 곧바로 당근을 줄 수도 없다.

기수와 말은 같은 호흡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서로의 상태를 알아낼 수 있는 사이가 돼야 한다. 총학생회는 좀더 내실있고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학생들이 좀더 주체적으로 학생자치기구의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좀더 자주 볼 수 있길 바란다.

<류지는 기자>

알림

개교 50주년기념 엠블럼 및 표어 현상공모

지난 날의 경희역사에 관심을 쏟는 까닭은 다가올 경희 앞날의 희망찬 모습을 그려봄으로써 한층 더 비람직한 경희의 미래를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번 엠블럼 및 표어는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대학주보가 후원합니다.

경희대학교의 역사와 전통, 학교발전의 의지를 가득 담아 응모하여 주십시오.

현상공모안내

	엠블럼	표어
응모대상	본교(대학원포함)학생, 동문, 교직원등 경희가족 모두	
작품내용	경희 50년 역사를 함축하고 미래 경희의 비전을 느낄 수 있는 원색 상정 도안	1.개교 50주년을 기념하는 배경 2. 21세기(또는 개교100주년)를 향한 경희발전의 의지를 담은 내용 3.경희인의 화합과 단결을 함축한 내용
작품형식	A4 Size의 화면에 4원색 이내로 직접 도안 또는 컴퓨터 그래픽 출력물로 제출	A4 용지에 20자 이내로 제출 (표어에 대한 별도 설명 첨부)
제출기한	1998.5.1(금) 17:00까지 *당선작이 없을 경우 2차 공모할 수 있음	
시상내용	당선작(1작품)-100만원 기적(2작품)- 각 30만원	당선작(1작품)-50만원 기적(2작품)- 각 20만원
제출처	개교 50주년기념사업회(본관1층) 961-0931~2 대학주보사 (사물)961-0093 ~4, (수원)201-2056,2860	
발표 및 시상식	1998.5월중 대학주보에 발표, 시상식은 발표시 공고함 (응모작품수는 제한 없으며, 응모자에 대한 편견은 경희대학교에 귀속함)	

대 학 주 보 사